

# 黃順元의 短篇小說 II

金 永 和

## 目 次

- |               |             |
|---------------|-------------|
| I. 序          | 5. 忍苦와 恨    |
| II. 作品世界      | 6. 人間의 외로움  |
| 1. 男女關係의 原初形態 | III. 作中人物   |
| 2. 殉愛의 한 유형   | IV. 背景과 분위기 |
| 3. 脫世俗의 男女關係  | V. 視點과 꿈    |
| 4. 純粹에의 還元    | VI. 結       |

## I. 序

필자는 황 순원의 해방 전에 쓴 단편소설을 살핀 일이 있다.<sup>1)</sup> 1945년 8월 이전에 쓴 28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의 작품의 성격과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

작품세계는 첫째,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의 세계를 그린 것, 둘째, 젊은 남녀를 등장시켜 순수한 감정과 사랑의 세계를 그린 것, 셋째, 고독한 노인들의 쓸쓸한 삶을 다각적으로 그린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작중인물의 선택은 대체로 사회활동을 삶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인물보다 어린이나 노인 또는 순수감정에 매달리는 20대를 많이 등장시켜 사회문제에 덜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황 순원은 사회의식보다 개인의식, 또는 인간의 본성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도 드러났다.

배경의 경우는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심화·확대하여 인간이 살고 있는 광장, 곧 역사와 현실에 대한 탐색에 소극적인 대신 배경이 가져오는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울어지고 있

人文大學 副敎授

1) 金永和, “黃順元의 短篇小說 I”, 「韓國言語文學」 23輯(1984.12)

음도 알았다.

소재나 기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설화에서 소재를 많이 끌어다 활용하고 있으며, 인간의 무의식의 심리 또는 일상성과 밀착된 꿈을 활용하여 작품을 독자에게 가깝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이 논문은 해방후에 쓴 75편의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그의 작품세계나 기법, 그리고 그의 소설이 지니는 성격과 특징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 있다.

해방후에 나온 75편은 단편집 「목님이 마을의 개」(1948), 「곡예사」(1952), 「학」(1956), 「잃어 버린 사람들」(1958), 「너와 나만의 시간」(1964), 「탈」(1976) 등, 또는 황순원 대표작선집 6권(1969. 5. 조광출판사)에 수록된 작품과 <그물을 거둔 자리>(1977 가을 창비), <그림자놀이>(1984. 1. 현대문학)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75편 가운데는 콩트나 소품에 가까운 작품, 이를테면 <아이들>(50), <메리크리스마스>(50), <골목안 아이>(51) 등과 작가 개인과 밀착된 듯한 소설인 <아버지>(47), <청산가리>(48), <곡예사>(52), <부끄러움>(54), <뱃상>(59) 등은 논의에서 가능한 한 배제했다.

해방후에 나온 황순원의 단편소설에 대한 비평이나 연구는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이 있다. 장편소설에 대한 논의는 넓고, 깊이 있게 다룬 글들도 더러 있었으나 단편소설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 소수의 작품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글들은 대체로 10여 편 되는데<sup>2)</sup>, 이 논문 또는 평문 등에서 자주 논의되는 것은 서정성, 치밀한 구성, 맑고 간결한 문체, 그리고 현실에 대한 방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황순원 문학에 대한 종래의 연구나 평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75편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가능한 한 많이 선택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데 있다. 그의 우수한 장편소설과 함께 그의 단편소설들도 한국소설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그의 단편소설의 성격과 특징을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2) ① 柳宗鎬, “散文精神考”, 「非純粹의 宣言」(新丘文化社, 1963)
- ② 鄭昌範, “黃順元論”, 「文學學秋」(1964. 8)
- ③ 金相鎬, “順元文學의 位置”, 「現代文學」124호(1965. 4)
- ④ 千二斗, 「韓國現代小說論」(형설출판사, 1969), p. 161.  
 \_\_\_\_\_, “黃順元の 文學”, 「新韓國文學全集」(14).  
 \_\_\_\_\_, “黃順元の 「소나기」”, 「한국현대소설 작품론」(文章社, 1981)
- ⑤ 李甫永, “黃順元の 世界(下)”, 「現代文學」 183호(1970. 3)
- ⑥ 金炳翼, “純粹文學과 그 歷史性”, 韓國文學 33호(1976. 7)
- ⑦ 金治洙, “黃順元の 小說美學”, 「文藝中央」(1979. 가을)
- ⑧ 정과리, “현실의 구조화”, 「말과 삶과 自由」(1985. 3)
- ⑨ 洪廷善, “이야기의 소설화와 소설의 이야기화”, 앞 책.
- ⑩ 권영민, “黃順元の 文體, 그 小說의 美學”, 앞 책.

## Ⅱ. 作品世界

### 1. 남녀관계의 원초 형태

〈산골아이〉(40), 〈별〉(40)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세계를 형상화해 온 황 순원은 〈소나기〉(53)에서도 다른 각도에서 어린이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소나기〉에 등장하는 ‘소년’과 ‘소녀’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다. ‘소녀’가 5학년 여자반에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소년’도 5학년이거나 아니면 6학년일 가능성이 있다.

이 작품은 이런 어린 소년과 소녀 사이에 일어나는 따뜻한 정을 아름답게 그린 소설이다. 황 순원의 문학을 비교적 폭넓게 살피고 있는 천 이두는 ‘사춘기에 접어들려는 소년 소녀 사이의 아련한 마음의 교류를 그린 작품’<sup>3)</sup>이라고 보고 있으면서도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여리고 순결한 어린 소년 소녀 사이의 마음의 교류를 그린’<sup>4)</sup> 작품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점이 있지만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동성끼리의 관계도 지극한 정이 있지만 그것은 양상이 다르다. 적어도 이성간의 관계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다음날부터 좀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비치 않았다. 다행이었다.／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비치 않은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한 함이 자리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각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그러한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보았다. 물속에 손을 잠겼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 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가점=필자)<sup>5)</sup>

‘소녀’를 만나지 못한 날 가슴 한구석에 허전한 마음이 생겼다는가, 검게 탄 제 얼굴이 싫었다는 ‘소년’의 심리는 같은 동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이성과 관련된 때 일어나는 심리일 것이다. 이성에 대한 그리움의 싹이 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토요일이었다.／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모르는 체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전에 소녀 앞에서 한 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날은 조심스럽게 건너다.／“애”.／못 들은 체했다. 득 위로 올라섰다.／“애 이게 무슨 조개지?”／자기도 모르게 돌아 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멀구었다. (가점=필자)<sup>6)</sup>

3) 千二斗, “黃順元의 「소나기」”, 「한국현대소설작품론」, p. 293.

4) 앞 논문, p. 294.

5) 「黃順元代表作選集〈5〉 (朝光出版社, 1969) p. 272.

6) 選集〈5〉, p. 273.

‘소녀’의 눈과 마주쳤을 때 눈을 돌리는 이 ‘소년’의 심리는 이성과 마주쳤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벌써 이성에 끌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단순한 인간에 대한 정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그리움의 싹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뒷걸음쳐 기어내려 간다. 꽃송이가 많이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흰덩굴을 그럭 쥐었다. /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년은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귀우친다. /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뿜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상처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sup>7)</sup>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이성의 육체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는 행동은 남녀관계의 구경적 모습이다.

이 소설에 드러난 행위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은 황 순원 소설 가운데 남녀관계를 취급한 다른 소설에서도 발견된다.

훈이 산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오작녀가 뒤따라 왔다. 아까 생시에는 오작녀가 앞서 달리고 훈이 뒤따라 달렸는데 꿈속에는 훈이 앞서 달리는 것이었다. / 훈은 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달렸다. 자꾸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얼굴과 목줄기와 손목이 긁혀었다. / 오작녀가 와 붙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와 붙들어 주었다. / 그리고 오작녀는 훈의 얼굴의 상처기를 빨기 시작했다. 목줄기의 상처기도 빨아주었다. 손등이며 팔목의 상처기도 빨아주었다. / 나중에는 혀로 핏기 시작했다. 이마며 어깨며 가슴이며 모조리 돌아가며 핏기 주는 것이었다. 부끄러웠다. / 그러면서도 오작녀가 하는 대로 내맡겨 주었다. 그게 어떤지 흐뭇하기까지 하다. (가점=필자)<sup>8)</sup>

남녀 관계의 한 유형인 ‘훈’과 ‘오작녀’의 관계에서도 꿈을 통해서 상처기를 핏기 주는 장면이 제시된다. 인간의 심층에 자리잡은 본능과 연결되는 세계의 하나다. 이와 같은 것은 초기작인 <허수아비>(40)에서도 볼 수 있다.<sup>9)</sup>

<소나기>에 나오는 ‘소년’과 ‘소녀’의 관계가 단순한 인간적인 정의만이 아님을 암시받게 된다. 따라서 ‘소년’이 ‘소녀’에 대한 감정은 이성에 대한 감정과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녀’의 경우는 어떤가.

수숫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년은 그냥 비를 맞아야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께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치가 우그러 들었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어들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치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땀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땀이 차오기 누그러지는 느낌이다. (가점=필자)<sup>10)</sup>

7) 選集<5>, pp. 275-276.

8) <카인의 後裔>, 選集<3>, p. 189.

9) 제동영감이 명주의 뺨을 핏기 하는 장면이 나온다. (選集<6>, p. 89.)

10) 選集<5>, p. 277.

‘소녀’가 ‘소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한 단면이다.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런 단초가 보인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 보니 엄청나게 불이 붙어 있었다. 빗마치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 소년이 등을 돌려 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혀었다. 건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마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 안았다. (가점=필자)<sup>11)</sup>

‘소녀’가 ‘소년’의 목을 끌어안은 행동은 단순히 무서움에 대한 반작용일까. 황순원은 이 행동의 심층부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동성끼리 업고, 업히고 할 때도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소설에 드러난 것과 같은 무드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원초적이고 무의식의 심리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은 이성에 대한 그리움의 반사라고 할 수도 있다.

소년은 소녀네가 이사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윤초시 손자가 서울서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다. / “왜 그런지 난 이사가는 게 싫어졌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올랐다. (가점=필자)<sup>12)</sup>

‘소년’과 헤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헤어지는 것이 싫다는 이 ‘소녀’의 심리는 무엇일까. 전에 없이 ‘소녀’의 눈에 쓸쓸한 빛이 떠올랐다는 것은 무엇일까. 헤어지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우정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닌 더 깊고 원초적이고 인간의 본성의 산물일 것이다.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두 변변히 못 써봤다는 군. 지금 갈아서는 윤초시네 두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이번 기집애는 여간 잠망스럽지가 않아? 차기가 축저든 차기 입은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물어달라구……”(가점=필자)<sup>13)</sup>

자기가 입던 옷이란 ‘소년’과 함께 개울을 건너다 ‘소년’에게 업히고, 그래서 ‘소년’의 등에서 움은 진흙물빛이 묻든 옷이다. 단순히 살았을 때 입었던 옷만이 아니라 ‘소년’과 연결된 옷이다. 그것을 입혀서 물어달라고 한 ‘소녀’의 심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소년’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것이다. ‘소년’을 하나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어린 소년·소녀들이 이성에 대한 그리움의 싹이 돋아나오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남녀관계의 원초적 형태 또는 남녀관계의 원형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비친 것은 동물처럼 암컷과 수컷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정신적 영역과 감정의 교류가

11) 選集(5), pp. 277-278.

12) 選集(5), p. 279.

13) 選集(5), p. 281.

있기 때문이고, 탈세속적이고 순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전에 쓴 <산골아이>와 <별>에서 인간의 꿈과 동경과 무서움과 떨림, 그리고 용기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성장에 따른 본능적이고 순수한 남녀관계의 원초적 형태를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다.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아직 때문지 않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탐색하고 있는 작가의 자세가 드러난다.

## 2. 殉愛의 한 유형

<잃어 버린 사람들>(56)은 황순원 세계에 있어서 남녀 관계의 한 전형을 이룬다. 남녀관계의 아름다움, 또는 자기 희생이 따른 순수한 한 형태가 감동적으로 묘사돼 있어,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동시에 한국인의 남녀 관계의 한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기회를 준다.

이 작품이 발표된 2년 후에 한 비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黃順元씨의「잃어 버린 사람들」을 발표 당시에 通讀하고 나서 참으로 드물게 밖에 맛볼 수 없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일종의 古典的 감명이었지만, 당시의 감동의 여운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現實逃避니, 있을 수 없는 얘기니, 혹은 현실의 幻想的 美化니 하는 화제에 궁한 비평가들이 愛玩하는 文字의 부당한 간섭을 조금도 받지 않고서, 요컨대 완벽한 작품이 은영중 독자에게 高壓的으로 강요하는 訥辯(訥辯)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 작가가 들려주는 사랑의 비극(가점=필자)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인간의 운명이란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르긴 모르지만 이 작품은 우리 말로 표현된 言語藝術의 한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sup>14)</sup>

남녀관계의 한 구경의 경지를 <소나기>에서 탐색한 바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석이’와 ‘순이’는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어려서 석이는 순이와 놀다 아버지한테 들켜 한두 번 아녀계 초달을 맞은 기억이 있었다. 아들의 글 공부를 돌리기 위해 먹을 것은 죄다 아버지가 맡아가지고 그날 공부가 끝나야만 내주곤 했다. 그런 대추나 밤같은 것을 들고 나가 순이와 나눠먹다가 아버지한테 들켜 그런 천한 집 자식과(가점=필자) 열려 논다고 종아리를 얻어맞곤 한 것이었다.<sup>15)</sup>

‘석이’와 ‘순이’의 관계는 <소나기>의 ‘소년’과 ‘소녀’의 관계와 비슷하다. 아직 때문지 않은 어린이라는 것, 신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14) 柳宗鎬, “散文精神考(1958.9)”, 「非純粹의 宣言」(新丘文化社, 1963), p. 150.

15) 選集(4), p. 32.

이것은 인간의 성장과정에 있는 한 자연스런 현상이다.

바로 삼녀 전에도 석이는 들관에서 소나기를 만난 일이 있었다. 개울에 미역 감으러 나갔을 때였다. 가까운 순이네 원두막으로 들어섰다. 막을 보고 있던 순이가 킁밧을 물들이며 둥그스런 턱을 반쯤 돌려 외면을 하고 일어섰다. 그러는 순이의 적삼 것에 묻은 기름 때가 문득 눈에 크게 들어왔다. 순이가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벌써 사오년 전부터 집모퉁이라든가 우물가에서 마주치면 눈을 내리깔고 외면하는 순이기는 했다. 그러나 이 때처럼 그네가 어린애가 아니라는 걸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땀을 앞으로 돌려 잡고 막을 내려가더니, 참외 몇 개와 낫을 올려놓고는 그대로 동네쪽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느 발두렁에서 호박알 하나를 따서 머리 위에 얹었다. 그러나 이미 젖은 옷이 몸에 찰떡 달라붙어, 도톰하니 굴곡진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석이는 순이가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sup>16)</sup>

<소나기>에서 ‘소년’과 ‘소녀’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장치로 소나기를 설정했던 것처럼 이 소설에서도 두 남녀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계기를 소나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부터 ‘석이’와 ‘순이’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장하는 사춘기의 청소년으로서 서로를 느끼기 시작하고, 이것이 시간과 더불어 밀착돼 나간다.

석이가 새로운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게 된 것은 역시 원두막의 일이 있는 다음부터였다. 단오에는 다른 누구에게서보다도 순이의 몸에서 더 향긋러운 창포와 청궁풀 냄새를 느끼고, 추석에는 달빛 속에 강강수월래를 도는 순이의 자태만이 한결 어여뻐 보였다. 기어이 골목을 지켰다가 손목을 잡았다. 잡힌 손이 가늘게 떨며 따뜻한 피가 만져졌다. 손목을 잡아 풀었다. 뿌리칠 듯하면서도 말없이 따랐다. 뒷등성이 상수리나무 숲으로 올라갔다. 서로의 가슴이 가깝다. 밝은 달이 싫었다. 어서 그늘진 데로 들어가고만 싶었다.<sup>17)</sup>

남녀 관계의 순수한 경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드러마가 강렬하지 않는 약점은 있으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아름답게 묘사하는 이 작가의 기법의 우수성도 드러난다.

이런 ‘석이’와 ‘순이’의 관계에 파국이 온다. ‘석이’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서젧골 ‘박참봉’의 소실로 ‘순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스승인 ‘박참봉’은 하반신을 못 쓰고 아랫도리가 식어가는 병에 걸렸다. ‘석이’가 병문안을 갔을 때도 병의 증세가 심각했다. 그때 어떤 명의의 말에 그 병에는 식어가는 아랫도리를 데워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젊은 여인의 몸기운으로 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박참봉’의 병구완을 위해 ‘순이’가 택해진 것이다. ‘순이’네는 ‘박참봉’네 소작인이었고, ‘순이’를 데려가는 댓가로는 논 다섯 마지기를 받기로 했다. ‘박참봉’이 죽은 후에도 ‘순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따로 땅을 떼어주기로 돼 있었다. 그것을 알자 ‘석이’와 ‘순이’는 슬픔과 한에 빠지게 된다.

된서리 내리는 동짓달 어느 아침에 순이는 가마에 실리어 서젧골로 갔다. 가기 전날 밤 석이는 귀동이(‘순이’의 남동생)를 시켜, 순이를 뒷등성이 상수리나무 숲으로 오게 했다. 순이는 울기만 했다. 석이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박참봉의 병구완을 위해서라면 하는 수 없었다. /그러나

16) 選集<4>, pp. 30-31.

17) 選集<4>, p. 32.

날이 갈수록 석이의 마음은 괴롭기 시작했다. 한 마을에 있다고 해서 매일 같이 보던 얼굴도 아니언만, 헤어지니 안타까이 보고 싶었다. 서젯골까지 가자고 하면 하루에도 두세 번 오갈 수 있는 시오리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지를 못했다. (중략) 거기 가서의 몸가짐이 어색할 게 미리 질리는 것이었다. 하염없이 순이가 돌아올 날만 기다렸다.<sup>18)</sup>

과거를 보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도 못하고, ‘순이’만을 생각하던 ‘석이’는 ‘순이’가 근친을 온 것을 알고 몰래 ‘순이’를 불러 내어 함께 고향을 등진다. ‘석이’는 상투를 틀어 올리고, ‘순이’는 머리를 새로 매만져 부부가 되었다. 며칠을 객주집에 묵으면서 고향을 멀리 떠나 왔다고 생각되자 장사를 시작했다. 서툰 장사였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어느날 ‘석이’가 밖에서 돌아와 보니 서젯골 ‘박참봉’의 아들과 장정들이 와 있었다. ‘박참봉’의 아들은 ‘석이’와 동문 수학 한 사이로 친구이기도 하고 ‘순이’가 서모로 들어오기 전 ‘석이’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 ‘박참봉’의 아들이 친척들인 청년들을 대동하고 ‘석이’와 ‘순이’를 찾아온 것이다.

‘박참봉’의 아들은 ‘석이’를 보자, 자기는 생전 ‘석이’를 안 만나려 했다는 것, 그런데 ‘석이’가 있는 곳을 모르기를 바랬는데 알게 되었다는 것, 알고 있는 이상 자식된 도리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왔다고 얘기하고, 그의 생각을 털어 놓는다.

“니도 아다시피 올 아버지가 그 여자를 소실로 대리온 것은 보통 경우와 달타. 호강할라고 대리온 기 양이고, 약 요량치고 대리온기다. 그러니 니가 한 짓은 올 아버지 약을 빼아신기나 하나 다물기 웁다.”/“좀전부터 마음에 걸리던 박참봉 아들의 상투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다. 그 새 박참봉이 세상을 떠났음에 틀림 없었다. 마음에 안 되었으나 자기가 할 일은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었다. (중략)/“내 니 심정을 모르는 배 양이다. 그러나 사람이라카는 것은 지가 징켜야 할 도리가 있는 기다. 그 여자가 올 아버지 소실로 들어왔이니 누가 머락캐도 올 아버지 소실이고 내한테는 서모 양이. 그것을 니가 못할 짓 한 것은 스승의 사모와 친구의 어머니를 해꾸질한거나 똑 같다.”<sup>19)</sup>

‘석이’는 할 말이 없었다. 스승의 아들과 함께 온 청년들이 코를 베자거니, 목줄기를 뽑아 죽여야 한다고 흥분할 때 ‘박참봉’ 아들이 상투는 키우면 그만이고, 코는 사람한테 하나 밖에 없으니 안 되고, 한쪽 귀를 찌르겠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삼강오륜을 깨우치지 못한 귀를 찔라야 한다는 것이다.

귀를 찔리운 ‘석이’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육체적 고통과 윤리를 저버렸다는 아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순이’를 데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운명이 안타까와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목격한 ‘순이’가 이날 밤 자살을 기도한다. 그러는 ‘순이’를 책하면서 그들은 다음날 다시 정처없이 떠나 어느 바닷가에 정착한다. 집에서 글을 읽는 일밖에 하지 않았던 ‘석이’는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서툴게 고기잡이를 나선다. 서툰 어부생활이었지만 ‘석이’와 ‘순이’는 행복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이들에게 밝은 손짓을 하지 않았다. 고기잡이를 나갔던 ‘석이’가 풍랑

18) 選集(4), p. 34.

19) 選集(4), p. 38.

을 만나 다른 어부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알게된 ‘순이’도 물에 빠져 죽었다.

‘석이’와 ‘순이’의 사랑은 첫째 부모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았고, 둘째 ‘석이’는 스승과 친구를, ‘순이’는 남편을 배신한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삼강오륜을 삶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던 조선조시대에 이들의 행위는 반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어가는 동안 그들의 행동을 반윤리적이라고 할 독자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그들의 사랑은 아름답고 순애적인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문학의 아름다움, 또는 예술의 중요성이 도덕이나 윤리를 뛰어 넘어 공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 3. 탈세속적 남녀 관계

<내일>(57)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한 바 있는 전직 대학교수의 소년시절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인생역정에서 일어났던 삽화들을 조립시킨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소심하고, 정감적이며, 술을 좋아하고,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독신이다.

대학 2학년 때 여학교를 갓 나온 소녀와 사랑을 나눈 일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음악을 좋아해서 좋은 레코드가 있다는 다방을 순회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저녁그늘이 내리깔린 가로수 밑을 산책하기도 한다.

될수록 천천히 걸었다. 가끔 사람의 그림자가 지나가곤 했으나 호젓한 가로숫길은 두 사람의 것이었다. 어느 가로수 그늘 밑에서 조용히 소녀의 어깨에도 팔을 얹는다. 소녀는 별반 몸을 피하는 기색도 없이 발걸음을 옮겨 놓다가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걸음을 빨리하여 자연히 어깨에 얹힌 팔을 떨구는 것이었다. 사람이 지나간 후에는 다시 소녀의 어깨에 팔을 얹는다. 그러면서 문득 소녀의 입술을 갈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곧 이러한 욕망은 이 깨끗한 소녀에게 대한 모독이라고 자기자신을 꾸짖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소녀의 말대로 이 가로숫 길이 열 배 스무 배가 아니라 그냥 무한히 번어나가 주었으면 하는 생각만을 한다. 그만큼 소녀를 사랑한 것이다. (가점=필자)<sup>20)</sup>

육체적 욕구를 절제하는 정신지향적 성격은 일차 결벽증이 심하거나 순수한 꿈이 많은 여주인공의 등장과 이런 여성의 꿈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남성을 통하여 질게 드러난다. 장편소설인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 나오는 ‘동호’와 ‘숙이’의 관계에서 한 절정을 보여주는데 이 소설에도 비슷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골짜기를 흐르는 물빛에도 첫가을 빛이 어려 있었다. 거기 널려 있는 둥글둥글한 바윗돌 앞을 짚고 계곡물을 건너 동성으로 올라갔다.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동성이 한중턱 으스스한 곳에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였다. 젊은 여자가 양손을 뒤로 덮고 고개를 활짝 뒤로

20) 選集<4>, p. 136.

젖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그네의 턱밑에서 목으로 흐르는 부드러운 선 한가운데 박힌 까만 점 하나가 눈속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불안간 젊은 여자는 몸을 움추리며 한손을 들어 무엇을 막는 시늉을 하면서, /“어마, 선생님의 그 눈!” /하는 것이었다. 나지막하나 꾸짖는 듯한 언성이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쪽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젊은 여자에게 어떤 여성을 요구하는 자세와 그런 눈을 하고 있었던 것을.(중략) /왜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아직 그네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팔을 내밀기만 하면 손에 잡힐 곳에 있다. 주저 말고 한번 더 팔을 내밀어 봐라. 그러나 좀처럼 팔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다.<sup>21)</sup>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첫째 여자의 결벽증과 육체적 접촉의 거부, 그리고 이런 상대의 기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소극적인 남자와의 관계, 둘째 남녀관계의 결실이랄 수 있는 어린애의 출생에 대한 거부, 세계 세속적 이해관계나 욕망에서 벗어난 삶의 추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비현실적이고 동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남녀 관계가 도리어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설득력 있게 전달돼 온다.

거기와 나는 교외 어느 한적한 곳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장만하기로 하오. 안방 한칸에 부엌 한칸, 그리고 서재로 쓸 건너방 한칸, 이렇게 단 세칸으로 된 그야말로 일간 두옥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집이요. 그러나 깨끗하고 조촐한 집이라야만 하오. 향도 정남향으로 앉아 양지밭라야 하고.(중략) /계절은 지금과 같은 가을철이오. 거기와 나는 아까부터 등나무 시렁밑에 나와 앉아 있소. 거기는 내가 입을 스웨터를 짜고 있고, 나는 새로 나온 잡지책을 뒤적거리고 있는 중이오. 한낮에 기운 맑은 햇살이 등나무 줄기와 물들어가는 잎사리로 흘러들어 여러 가지 무늬를 그려놓고 있소. /주위는 한껏 조용하오. 문안의 소음과 진애도 저쪽 짙은 잿빛속에 잠겨 아득하오. 이따금 어디선가 돌 깨는 소리가 아스란히 들려오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귀에 거슬리는 신경질스러운 소리는 아니오. 등나무 새로 흘러드는 투명한 햇살이 소리없이 무늬를 이동시키고 있소. 이런 속에서 거기 무릎에 놓인 털실꾸리가 풀리면서 옷에 스치는 소리와 내가 넘기는 책장의 마른 종잇장 소리가 제일 큰 소리요. 거기와 나는 별로 말을 주고 받지도 않소.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가슴속은 충족할 대로 충족해 있는 것이요.<sup>22)</sup>

40대의 전직 대학교수의 생활 설계다. 탈세속적이요 동화의 세계라고 해도 좋을 만큼 순수를 지향하는 세계다. 이것은 초기작 <피아노가 있는 가을>(40)에 나타났던 세계가 좀더 심화되고 세련된 것이다.

황순원은 남녀관계를 미화하는데 탁월하다. 이런 세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불가살이>(56), <비바리>(56), <링반대롱>(58), <한 뼉취에서>(58), <조그만 섬마을에서>(65), <자연>(66) 등에도 드러나 있고, 장편소설인 <일월>(64)에서 ‘한수’와 ‘진희’ 사이에도 나타난다.

황순원 세계의 남녀관계는 동화적이고, 탈세속적이며 순수하고 낭만적이다. 이 점은 초기작에서 후기작에 이르기까지 황순원 세계의 기조가 되어 있으며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것에 혐오감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요소다.

21) 選集<4>, pp. 166-167.

22) 選集<4>, pp. 186-187.

## 4. 순수예의 환원

〈학〉(53)을 읽으면 인간에 대한 황순원의 신뢰가 상당히 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 본성은 선한 것이고, 그러한 선한 것에 대한 신뢰가 질게 나타나는 것이 이 작품일 것이다.

삼팔 접경의 마을에서 ‘성삼’이와 ‘덕재’는 함께 자랐다. 그들의 부모는 개화의 세례를 받은 일이 없는 소박한 농민이요, 그들 또한 새로운 교육을 받은 흔적이 없는 소박한 농민들이다. 그들은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성장하면서 농촌 소년들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 어려서 ‘혹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가기도 했고, 동네 소녀인 ‘꼬맹이’를 놀려주기도 하면서 함께 성장한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밀착된다.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세련미가 없는 대신 순박하고 이해타산에 예민하지도 않다.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줄 모르는 문명 이전의 순수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6.25가 일어나 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또는 그들의 선택과도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 ‘성삼이’는 치안대원, ‘덕재’는 농민동맹부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직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사람들이다.

집에 숨어 살다가 치안대원에게 붙잡힌 ‘덕재’를 보고 ‘성삼이’는 깜짝 놀라는 한편 그의 호송을 떠맡겠다고 나섰다. 어렸을 적 단짝이었던 ‘덕재’가 농민동맹부위원장이 되어 부역했다는 사실이 못마땅하고 화가 났다.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 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나?” /“그게서야 덕재가 혈곳 이쪽을 치어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고개를 이리로 돌린다.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꼈다. (가슴=필자) 막혔던 무엇이 풀려내리는 것만 같은. 그러나, /“농민동맹부위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구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구 숨어 있었나?” (중략) /성삼이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발명은 소용없다. 영락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그저 여기서 바른 대루 말이나 해 봐라.” /“덕재는 그냥 외면한 채, /“발명은 할려구두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데다가 근농군아라<sup>23)</sup> 해서 농민동맹부위원장 됐는 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구, 나는 예나 이제나 땅 과묵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어,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앉아 수었다. 벌써 한 반년 된다.”<sup>23)</sup>

이들에게 이데올로기를 덮어 씌워 단죄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몰랐던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행동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덕재’를 호송하면서 혹시 ‘덕재’가 사람을 죽인 죄를 짓지나 않았나 걱정하던 ‘성삼이’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 것은 ‘덕재’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배반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요, 자기도 친구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인에 대한 반사다.

23) 選集(5), pp. 314-315.

황 순원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우정에 대한 신뢰를 긍정하면서 6.25의 민족상잔의 극복의 방법을 암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극소수의 이데올로기 광신자들에 의해 선량한 다수가 희생될 수 밖에 없었던 급조된 좌익과 급조된 우익에 저도 모르게 함몰되어간 사람들의 한 모습을 이 소설을 통해 제시하면서 그 극복의 방안을 생각해 해주는 것이 소설이다.

인간은 원래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것은 문명 이전의 순수세계에서는 지켜질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한쪽은 호송하는 자(우익)요, 한쪽은 호송당하는 자(좌익)이면서도 어린 시절(순수세계)에 있었던 학 사냥이 재현되자 현실을 잊어 버리고 순수세계로 환원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양상이 어떠해야 함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인간의 심연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인간의 순수성에 대한 신뢰에서 온 것이다.

6.25라는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인간에 대한 강한 신뢰를 그린 작품은 <학> 외에도 <모든 영광은>(58), <가랑비>(61) 등이 있다.

## 5.忍苦와恨

수절한 과부의 이야기, 또는 그런 수절에 대한 여인의 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 온다. 따라서 수절하는 과부의 이야기는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황 순원의 <과부>(53)는 한 소년 과부의 기구한 삶과 그 형상화가 절실하다는 데 이야기의 깊이와 폭이 있다.

'박씨부인'은 열 일곱에 다섯 살 밑인 열 두살의 신랑에게 시집을 왔다. 이 신랑이 아직 남편 구실을 못했지만 서당에 다니면서 글씨만은 곧잘 썼다. 그래서 새서방이 쓴 장지를 차곡차곡 모아 간직해 두는 것으로 시집살이 보람을 삼았다. 그러나 시집 온 지 이태째 되는 해에 남편이 염병에 걸려 앓아 눕게 되자 그녀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남편에게 먹이면서 살리려고 했으나 끝내 죽고 말아 소년과부가 됐다.

시집은 큰 자작농이어서 일손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먼 시형벌 되는 사람을 일꾼으로 데려다 쓰게 되었다. 그런 어느날 소년과부는 잠결에 이 일꾼에게 몸을 버린다. 소년과부는 죽으려고 했다. 그러나 쉽게 죽지도 못하고 시부모님이 알까 전전궁궁한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어두운 밤을 기다리게 되었고, 임신까지 하게 된다. 일꾼이 함께 도망가자고 했을 때 그녀는 응하려고 했다. 그 때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한다.

안방쪽에서 나지막하나마 엄한 시아버지의 말소리가 컷전을 때린 것이었다. /“당신은 잠자쿠 있어. 벌써부터 나두 눈치채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무어라고 대꾸하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시아버지의, /“어쨌든 당신은 잠자쿠 있어. 조금이래두 주둥아릴 놀렀단 당장 도끼루 꽤 없앨테야. 그저 뒷일은 내 처리할 게 당신은 잠자쿠 있어.” /소년과부는 버쩍 정신이 들었다. 실로 자기는 무슨 행복 같은 것을 찾아 떠날 몸이 아니라 여기 남아서 시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몸인 것이다.<sup>24)</sup>

사내와 함께 달아나려던 '소년과부'는 시아버지의 이런 소리를 엿듣자 스스로 주저 앉았다.

24) 選集(5), p. 409.

스스로 윤리를 저버린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집안을 망신시키고 시가를 배반하게 된 자신은 행복 같은 것을 찾아나설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바깥 출입을 끊고, 어린애를 낳았다. 어린애를 낳게 되면 깊은 산속에다 버리기로 사내와 약속을 했으나 차마 그러지 못할 때 시아버지의 배려로 먼 친척에게 맡겨졌다가 아이 아버지(사내)가 데려갔다는 얘기를 듣는다.

20년이 지난 후 시부모가 돌아가자 과부는 큰집을 시동생에게 맡기고 그녀는 아랫마을에 초가집 한 칸을 새로 마련하고 나와 살았다. 그러나 20여년 전 떠나 보낸 핏덩이에 대한 아픔과 뉘우침, 그리고 그리움 속에 지낸다. 그럴 때 한 나그네가 어머니를 찾아왔노라고 이 과부댁에 들렀다. 그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다가 과부는 그가 자기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반갑고 놀랐으나 이내 냉정을 도로 찾고 나그네가 찾는 사람은 이미 돌아갔다고 했다. 나그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과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갈등을 겪다가 이내 알리지 않기로 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다.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서 떠나가는 나그네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내 너한테 큰 쫄 지었다. 그때 나는 그저 집안 체면만 생각했다. 후에 내 잘못을 깨닫고 애 아버지의 행방을 탐문두 해봤지만 통 알 길이 없구나, 앞으로 네 살아 있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 지긋이 감은 시아버지의 움푹 꺼진 눈시울에 이슬 방울이 내 돌렸다. / “아닙니다. 아버님.” / 소년과부는 이 늙은 시아버지를 것처럼 괴롭힌 것은 다른 사람 아닌 자기였다는 생각에 그만 고개를 시아버지의 옆구리에 묻고 말았다. / 소년과부는 오른손 무명지마저 단지를 하였다. 시아버지가 희생만 된다면 자기 온 몸의 피라도 다 뽑아주고 싶은 심정이었다.<sup>25)</sup>

체면과 가문을 중히 여기던 시대를 살았던 한 여인의 비극과 희생을 그린 이 소설에서 한국 여인들의 삶의 한 단면을 본다.

본능을 억제하고, 모자간의 천륜까지도 저버리면서 가문과 시아버지의 체면을 지키려 했던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은 인간의 삶의 한 양식을 제시하고 인간의 진면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작품이다.

## 6. 人間の 외로움

<수컷 퇴화설>(66)은 인간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신체적 기능이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을 점점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박교수>는 50대 후반이 되면서 시력이 약해지고, 건망증이 늘어나며, 쉽게 피로해질 뿐 아니라 감수성조차 둔감해진다. 이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다. 그런데 그것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충격적으로 닥아오는 것은 무엇일까.

25) 選集<5>, pp. 411-412.

남자가 여자보다 술 담배를 더 즐겨 먹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 결국 남자편이 여자편보다 더 외롭기 때문이 아닐까(가점=필자) 아내가 말한 대로 부부중에 여편네가 먼저 죽고 남편이 살아 남으면 궁상스럽게 보이는 것도 여자보다 남자가 더 외롭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중략)이 때 박교수는 묘한 착상을 하나했다. 녀석(손자=인용자) 이 책을 뽑아 던지는 장난에 지친 기미를 보아 휘파람을 불어 녀석의 주의를 끌어놓고 잠옷 앞섶을 헤친 후 젓꼭지를 가리켜 보았다. 녀석이 잠간 눈여겨 보더니 덩석 와 무는 것이다. 연한 입술과 혀가 와 닿을 때의 그 간지럽고도 감미로운 쾌감, 그러나 녀석은 한두 번 빨아보고는 입을 메면서 입술을 찡그리는 것이다. 젓은 나오지 않고 찢절한 맛만났을테니. 게다가 젓 가장자리에 털까지 나 있는 그 촉감이 결코 좋을 리 없을 것이었다. 그래도 박교수는 녀석을 향해 다시 한번 빨아달라고 자기 젓을 두들겨 보였다. 그랬더니 녀석은 고개를 좌우로 살래살래 흔들며 어서 젓을 가리라는 듯한 손시늉을 하는 것이다. 어린놈의 눈에도 보기에 안됐던 것이라. 여자들이 남자보다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었다.<sup>26)</sup>

황 순원의 소설에 「인간의 외로움」을 드러낸 대목이 가끔 나온다. <일월>(64)에서의 ‘기룡이’나 ‘인철’의 외로움, <나무들 비탈에서다>의 (60)에서의 ‘현태’의 외로움 등은 그런 예가 될 것이다.

인간이 외롭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숙명적인 것일까. 인간이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측면은 어느 한 가지를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황 순원은 그것을 인간의 숙명에서, 그것도 여자보다 남자가 더 그런 숙명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것은 수컷의 한계요, 수컷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소설에 <우산을 접으며>(66), <나무와 돌, 그리고>(76), <원색 오후기>(66), <마지막 잔>(74) 등이 있다.

결국 인간의 늙음과 인간의 외로움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실상을 탐색하고 있는 작가의 자세가 엿보인다.

### Ⅲ. 作中人物

해방 후 황 순원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작중인물을 유형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될 것 같다.

A형 : 소년과 소녀(소나기), 영이(명아원에서), 돌이(왕모래), 파쪽(안개 구름끼다), 바우(황소들), 아이(매), 아이(피) 등.

B형 : ① 석이와 순이(잃어 버린 사람들), 꿈이와 꿈단이(불가살이), 윤이와 진이(조그란 섬 마을에서), 비바리(비바리) 등.

② ‘나’와 젊은 여인(내일), ‘나’와 설희(링반데롱) ‘나’와 그녀(자연), 준이(비바리) 등.

C형 : 덕재와 성삼이(학), 바우(산), 덕구(소리), 그(모든 영광은), 그(가랑비) 등.

26) 黃順元 短篇集 <탈>(文學과 知性社, 1978). pp. 103-106.

D형 : ① 박씨부인(과부), 서노인(필묵장수), 윤노인(원색 오뚜기), 송암선생(담배 한 대 피울 동안) 등.

② 박교수(수컷 퇴화설), 허웅(우산을 접으며), 그(나무와 돌, 그리고), 등.

E형 : 나(이리도), 나(참외), 나(어둠 속에 찍힌 판화), 나(그래도 우리끼리는), 나(비늘), 나(조그만 섬마을에서), 나(숫자놀이), 나(모든 영광은), 나(안개 구름 끼다), 나(부끄러움), 나(청산가리), 나(꼭예사), 나(아버지), 나(빋상), 나(내 고향 사람들), 나(마지막 잔) 등.

A형은 어린이들이거나 소년, 소녀들이다. 이런 인물들은 해방 전 소설에도 많이 등장하고, 장편소설인 <인간잡목>(55), <움직이는 성>(68) 등에도 많이 나온다. 그만큼 어린이나 소년 소녀들이 그의 소설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어린이들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탐색해보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대체로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은 꿈과 동경과 무서움과 떨림 속에 있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 있는 일들을 묘사하여 인간이 따뜻하고 선량한 모습을 제시하고 인간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6.25등 어린이들의 삶에 타격을 준 일이 있을 때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 가령 <맹아원에서>의 ‘영이’, <안개 구름끼다>의 ‘파죽’ 등을 등장시키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끝내 따뜻하고 선량한 본성을 잃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어 인간을 긍정하고 있다.

B형 ①은 개화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재래의 한국인들로 그들의 공통점은 사랑을 위해 모든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자기 회생을 하는 인물들이고, ②는 개화의 세례를 받은 인물들로서 남녀관계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의지를 지닌 인물들이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이 <내일>의 ‘젊은 여인’일 것이다.

어느날 오후, 장충단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거닐면서 젊은 여자가, /“선생님, 전 요즘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런데?” /“교외에다 말에야,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구, 거기서 살구 싶어요.” /“혼자서?” /“혼간 왜 혼자예요, 선생님과 같이지” /젊은 여자의 볼이 엷은 장미빛으로 상기돼 있었다. /“집은 적어두 괜찮아요. 안방 한 칸에, 서재로 쓸 건넌방 한 칸이면 넉넉해요. 뜰에는 화단이 있구, 그리구 닭이나 몇 마리 기르구”, (중략) /“애는 낳지 않기로 해요. 애초에 낳는 행위는 하지 말기로 말예요. 그게 행복스러울거예요.” (중략) /“왜 그렇게 이상한 웃는 얼굴을 하세요. 아직두 여성 이전의 여자라는 거죠? 여성 이전의 여자건, 이 세상 마지막 여자건 아무런대두 좋아요. (중략) 선생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런 남녀의 행위는 싫어요. 그런 행위가 있는 답엔 어떤지 선생님이 지금처럼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sup>27)</sup>

남녀가 함께 살면서도 육체 관계를 떠난 정신적인 삶을 꿈꾸는 이 ‘젊은 여인’은 스스로 수취심이나 감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서 동화와 같은 삶을 생각하고 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적이 있고, 한 번 약혼한 적도 있는, 따라서 현실적인 삶의 의미, 남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의 20년 연상의 독신 남자와 동화 속의 세계처럼 살기를 원하는 비현실적이고, 꿈많은 인물이다.

27) 選集(4), pp. 178-180.

이런 인물은 <피아노가 있는 가을>(40)이나 <소리>(40)에 나오는 인물처럼 추상적이면서도 남녀 관계를 탈세속적인 순수의 세계로 이끌어가려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의 설정은 남녀 관계의 구경적 의미를 탐색하는 황순원 세계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일상성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인물은 비현실적이면서도 산뜻하고 상쾌한 느낌을 준다.

C형의 인물은 6.25라는 민족적 비극이나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도 그것을 깊이 의식하지 않거나 그것의 의미를 알아채리지 못한 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따뜻한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특별히 매력에 있는 인물이거나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암시를 주는 인물이다. 흔히 분단극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런 인물들의 삶은 하나의 암시가 될 듯도 싶다. 그것은 전쟁이라든가,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라든가 하는 문명의 산물보다 인간이 지닌 본성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황순원의 단면은 이 인물들의 창조에서도 볼 수 있다.

D형은 노인들이다. ①은 개화의 세례를 받기 이전의 노인들이고, ②는 개화의 세례를 받은 인물들이다.

늙고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심경을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 작가의 탐색이 드러나고 있다. 해방 이전의 소설에도 노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 작가의 탐색이 쉬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E형의 인물은 작가의 분신이거나 작가의 그림자가 짙게 투영된 인물이다. 이 인물들에 드러나는 특징은 따뜻한 정이 있고, 술을 좋아하며, 소심하고 현실보다 꿈을 더 많이 생각하는 듯한 인물이다. 이러한 요소를 지닌 이 인물들의 삶도 독자에게 따뜻하게 전달돼 온다.

대체로 황순원 소설의 인물들은 어린이나 소년 소녀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다. 젊은 사람들이 등장한 경우에도 사회 생활이 배제된 인물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인물들의 창조를 통해서 황순원은 그가 살고 있는 현실, 또는 시대에 대한 탐색보다 인간의 원초적 본성에 대한 탐색이나 꿈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인 작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 IV. 背景과 분위기

해방 후에 나온 소설 75편을 살펴보면 공간적 배경은 <황소들>(46), <목님이 마을의 개>(47), <솔메 마을에서 생긴 일>(51), <귤목장수>(55) 등 21편이 시골이고, <담배 한 대 피울 동안>(47), <내일>(57), <수컷 퇴화설>(66), <숫자풀이>(74) 등 22편은 서울로 되어 있다. <아이들>(50), <메리크리스마스>(50), <어둠 속에 찍힌 관화>(51), <꼭예사>(51) 등은 피난지를, <이리도>(48)는 북만주, <여인들>(48)은 간도, <비바리>(56)는 제주도, <비닐>(63)은 강릉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달과 발파>(63), <탈>(71), <뿌리>(75) 등 배경을 알기 힘든 작품도 10여편이나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황순원의 거주지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골과 서울과 피난지, 그리고 그가 여행을 다녔을 가능성이 있는 지방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다. 이것은 그가 소설의 배경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의 삶과 밀착된 곳에서 찾았다는 것이 드러난 대신 배경이 주는 사회성이 없다.

시간적 배경은 <목님이 마을의 개>(47), <이리도>(48), <불가살이>(55) 등 11편은 식민지시대, <술>(45), <두꺼비>(46), <집>(46), <담배 한 대 피울 동안>(47), <모자>(47), <필묵장수>(55) 등 11편은 해방에서부터 6.25이전을, <어둠속에 찍힌 판화>(51), <곡예사>(51), <학>(53), <맹아원에서>(53), <내일>(57), <모든 영광은>(58), <안개 구름기다>(58) 등 24편은 6.25 이후 50년대를, <비늘>(63), <수컷 퇴화설>(66), <우산을 접으며>(66), <자연>(66) 등은 60년대를, <숫자풀이>(74), <나무와 돌, 그리고>(75), <마지막 잔>(74) 등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작품 쓸 당시의 시대를 작품의 시간적 배경으로 그대로 활용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잃어버린 사람들>(56)이 조선조시대를, <차라리 내 목을>(67)이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그가 살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격변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대한 폭넓은 탐색이 없다.

황순원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그의 장편소설에 선명히 드러난다. <별과 같이 살다>(47)는 해방 전후를, <카인의 후예>(53)는 해방 직후를, <인간적목>(55), <나무들 비탈에서다>(60)는 6.25와 그 이후 휴전 전후를, <일월>(64) 및 <움직이는 성>(72)은 60년대, <신들의 주사위>(82)는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대체로 그의 삶의 궤적과 같이 하고 있는데 단편소설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의미, 역사적 상황에 대한 탐색이 단편소설에서는 별로 없다. 장편소설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시대적 사회적인 문제가 다루어진 경우가 있으나<sup>28)</sup> 단편소설에는 그것이 없다. 오히려 배경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맘때부터 아주 어두울 때까지가 이 집은 가장 바쁘다. 이 집의 위치가 남대문시장과 가까운 탓에 그곳 노점 장사꾼들이 들어가는 길에 한잔씩 걸치러 들르는 것이다. 술청 한 쪽 벽을 따라 걸게 붙여 놓은 기름때가 낀 목로와 흙바닥에 마구 놓인 역시 기름때가 까맣게 낀 송판 탁자와 걸상이 모자라 여기저기 서서 돌아갈 만큼 붐벼낸다. 그리고는 한참동안 북새통을 이룬다.<sup>29)</sup>

얼마전 동대문계의 흰 책방에 들렀다가 저녁때 어느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얼근히 취해 그만 일어서려고 하는데 눈에 띄지 않은 누군가가, 한잔만 더 마시지, 하고 속삭였다. 소리는 작고 낮으나 미묘하고 마음 속을 흔드는 속삭임이었다. 잠시 망설인 후에, 아니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했다. 그즈음 금주는 못하더라도 절주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마음 먹고 있었던 참이었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어느 날 여자 졸업생 한테서 편지를 받았다. 문안 편지였다. 그래도 옛 선생을 잊지 않고 있는 게 고마웠다. 그 편지글 속에 사모님도 안녕하시냐고 하고는 <지금이니까 말씀 드립니다마는 재학시절 한때는 선생님을 좋아비 선생님미 아니신가 생각한 적이 있었읍니다.> 하고 나

28) 가령 <카인의 후예>에서는 해방직후의 북한의 사회상을, <神들의 주사위>에서는 70년대의 농촌 문제와 공해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29) <모든 영광은>, 選集(4), p. 208.

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로서 수염을 자주 깎지 않더라는 것과 가끔 뒹은 와이셔츠를 그냥 입고 다니더라는 점을 들고 있는 것이었다.<sup>30)</sup>

그의 소설에 술집, 또는 술마시는 장면 등 술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런 배경은 어떤 독특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등장인물의 심리상태, 처지 등이 섬세하게 드러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한 인간이 사회에서 사회문제에 부딪쳐 고뇌하는 모습이나 갈등, 또는 한 시대의 문제에 매달려 고뇌하고 번민하는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소설의 주제를 형성하는 한 요인으로 그의 단편소설에서 현실과 사회의 문제보다 다른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작가의 성격이 드러난다.

## V. 視點과 꿈

황순원 소설의 기법중 작품과 독자를 밀착시키는 두 가지 장치를 자주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시점의 채용에 있어서 1인칭 B형 즉 부인물이 등장해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작품과 독자를 근접시키는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영광은>(58), <어둠속에 찍힌 판화>(51), <안개 구름 끼다>(58), <조그만 섬마을에서>(58), <비닐>(63), <마지막 잔>(74) 등은 작가의 분신이거나 작가의 그림자가 짙게 투영된 인물을 등장시켜 주인공을 독자에게 근접시키고 있다.

요 며칠 동안 나는 원인 모를 열로 자리에 누워 앓았다. 열에 뜬 머리에 아무 연관성도 없는 생각들이 마구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 중의 하나가 이 피난 시절에 있었던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그날 밤 내 어처구니 없는 주정을 받은 소녀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술집에서 뵈지 않게 되었다. 주인 아주머니의 말이 부친이 와서 데려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 생활 주변을 스치고 지나간 애들이 꽤 많은 가운데, 지난 여름에 만난 「과쪽」이라는 소년이 또 하나 있다.<sup>31)</sup>

작중에 '나'가 등장해서 내 생활의 편린을 제시하고 그 생활 속에서 만난 인물을 제시하여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독자는 쉽게 부인물 '나'를 통해서 '과쪽' 즉 주인공의 사람 됨됨이와 그의 이야기, '나'와 주인공의 관계를 알게 되어 전혀 낯선 느낌이 들지 않게 된다. 부인물인 '나'를 통해서 작품과 독자, 작중인물과 독자를 밀착시키는 기법적 장치를 하고 있다.

원과 나 사이는 뭐니뭐니 해도 술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둘이 술 자리를 같이 해 온 역사란 꽤 출기차게 길다. 1940년 여름부터니까 만 33년이 넘는다. 곧 우리 둘이 사귀어 온 세월이기는 하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내가 평양 경창리에서 철성문 밖 기림리 모래터로 이사 가서다. 우리 둘이

30) <그래도 우리끼리는>, 選集(4), p. 359.

31) <안개 구름끼다>, 選集(4), p. 281.

다 아는 어떤 사람이 새에 끼어 인사를 했는데 그 때 들이는 이미 애아버지가 새 있었다.”<sup>32)</sup>

저의 작가와 동일 인물인 ‘나’를 통해서 ‘나’와 ‘원’과의 오랜 친교를 이야기하고 ‘원’이 죽기 전에 나누었던 마지막 잔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독자는 ‘나’와 더불어 ‘원’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있어 역시 작품과 독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둘째는 꿈을 하나의 장치로 채용하여 독자를 작품에 가까이 끌어 온다. 〈잃어버린 사람들〉, 〈너와 나만의 시간〉, 〈우산을 접으며〉, 〈술〉, 〈목숨〉, 〈골목안 아이〉, 〈두메〉, 〈과부〉, 〈소리〉, 〈비늘〉, 〈온기있는 파편〉, 〈자연〉, 〈내일〉 등에는 꿈 장면이 나온다.

혜경이 약혼한 지 며칠 뒤 꿈얘기를 한 일이 있었다. 결혼식장에서였다. 신랑 입장에 이어 이제 그녀가 들어갈 차례가 되어 무심코 거울을 쳐다보는 깜짝 놀랐다. 차려 입은 웨딩드레스의 빛갈이 검정빛이었던 것이다. (중략) / “아무래도 제 결혼이 불행해질 것만 같아요.” / “쓸데없는 소리. 꿈에 궂은 것보면 되레 좋다지 않아”<sup>33)</sup>

등장인물의 심리를 꿈을 빌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하얀 빛깔이어야 할 웨딩드레스가 꿈에 검정빛으로 나타났다면 불안해 할 것은 틀림없다. 결혼에 대해 어딘가 불안해 하고 있음을 꿈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은 꿈의 장치는 그의 소설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황순원 소설의 한 특징이 되어 있다.<sup>34)</sup> 꿈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리와 일상성에 깊이 밀착된 것으로 작품을 독자에게 친숙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VI. 結

해방 후에 나온 황순원 소설의 세계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요소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녀 관계에 대한 탐색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녀관계의 원초 형태 또는 남녀관계의 원형으로부터 순애의 아름다움과 탈세속적인 순수 사랑의 아름다움이 제시되어 이런 남녀관계를 통해서 인간성에 대한 탐구와 옹호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런 세계는 특히 〈소나기〉, 〈잃어버린 사람들〉, 〈내일〉 등에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6.25라는 복잡하고 거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의 순수성이 제시되고 그런 순수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학〉, 〈모든 영광은〉, 〈가랑비〉 등에 그런 세계가 드러나고 있다.

32) 〈마지막 잔〉, 短篇集 〈탈〉, p. 231.

33) 〈우산을 접으며〉, 選集〈6〉, p. 371.

34) 金永和, “黃順元의 소설과 꿈”, 月刊文學 183號(1984.5). 참조.

세째, 유교 윤리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체면을 소중하게 여기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한국 여인들의 인고와 한의 세계를 깊이 있게 다루어 한국인의 삶의 한 양식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특히 <과부>에 그런 세계가 자세히 드러난다.

네째, 인간의 숙명적 외로움을 점점한 세계가 나오는 데 <수컷 퇴화설> 등 그의 최근작에 그런 요소가 짙게 드러난다.

75페이지나 되는 소설을 이상 열거한 몇 가지 요소로 요약될 수 없는 것도 상당수 있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는 대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세계는 해방 전 소설에 나온 어린이의 세계를 더 심화 시킨 점도 있고, 순수 사랑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탐색한 작품도 있어 해방 후에 나온 소설은 초기작에 비해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더 세련돼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작중 인물의 선택은 해방 전 작품들과 비슷하게 사회 생활을 기본 축으로 해서 사는 인물들, 이를테면 민족 공동의 문제라든가 한 시대의 관심사에 눈을 돌리는 인물이 배제되고 어린이나 노인, 또는 소극적 지식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집단의 문제보다 개인의 삶, 그보다도 인간의 본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작가의 특성이 드러난다.

배경의 경우에도 배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적, 사회적 문제에는 나아가지 않고 소설의 한 요소로 제시되는데 그쳐 역사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은 대신 배경을 통해서 소설의 분위기와 무드를 조성하는데 두드러진다.

시점에 있어서 일인칭 시점이 많이 애용되고 작품을 독자와 쉽게 접근시키는 기능을 하는 점이 두드러진 대신 사소설적 요소가 가미되고 있으며 꿈의 활용은 해방전 작품과 비슷하다.

황순원의 단편소설에서 주목할 사실은 첫째, 소재를 재래의 설화 또는 재래의 한국인의 삶에서 많이 선택하여 다른 나라 문학과 비교할 때 민족적 개성과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문학을 창조해 놓았다는 점, 둘째 그가 선택한 작중인물 가운데는 재래의 한국인이 상당수 등장하여 한국인상의 한 전형을 창조했다는 점,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작품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인물들을 상당수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며, 세째, 황순원은 인간의 살고 있는 시대나 사회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 욕망, 슬픔, 좌절 등 인간 본성과 감정 생활에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요소가 그의 문체의 특이성, 구성의 치밀성, 서정성 등과 조화를 이루어 그의 문학을 당대의 문학 가운데 상위의 자리에 올려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ary

## Hwang Soon-won's Short Stories (2)

*Kim Young-hwa*

Hwang Soon-won has issued 75 short stories during the period from August 1945 until January 1984.

These 75 novels can be summarized into several subjects and contents, if we analyze them, and they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 1) works which inquire into human nature through the beauty of love of the original form as well as unworldliness of the relation between man and woman,
- 2) works in which confidence in human being is strongly expressed by showing how the purity of mankind has been maintained even in the historical upheaval of the so-called 6.25 disaster,
- 3) works which describe hardships and grievances of Korean women with a background of the age in which Confucian ethics were strictly observed, and the prestige and honor of family were valued, and,
- 4) works inquiring into predestined solitude of mankind.

Consequently, Hwang Soon-won has treated problems of human nature through his works transcending time and space and protected nature, instead of treating the social problems occurred in the social realities.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s, such characters as paid concern to the common problems of Korean people or to the problems of a certain period were excluded, and children, old men or passive intellectuals entered the stage instead.

He utilized its background as a machinery manufacturing the atmosphere and mood of the novels rather than creating the background to draw concern to the historic social problems.

He created a literature which strongly expressed Korean people's characteristics by selecting subject matter from our native tales and Korean people's life.

Hwang Soon-won is a writer who wrote novels with a deep concern for the original human nature and its sentiment, that is, its dream, desire, sorrow or frustration etc. which mankind cherished, instead of writing about the age or society in which mankind lived.